

'이태원클라스' 안보현

욕받이 캐릭터 한명쯤 필요해



장근원 역할로 존재감...복서·모델 거쳐 배우 꿈 이뤄 "욕 많이 먹는 악역, 시청률 높아 행복하네요. 하하하"

이보다 더 '신스틸러' (주연보다 더 시선을 사로잡는 조연)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을까. 최근 종영한 JTBC '이태원 클라스'에서 악역 장근원 역을 맡은 배우 안보현(32) 얘기다. 드라마에선 주먹까나 쓸 것처럼 보였고 높은 톤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았지만, 최근 광화문에서 만난 그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평소 생각이 많았던 듯 막힘 없이 줄줄 답변을 내놨다.

최고 시청률 16.5%로 JTBC 역대 드라마 중 2위를 차지한 '이태원 클라스'는 장근원이 이야기 전개상 11~12회에서 잠시 퇴장했을 때 시청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시청자들 사이에선 장근원이 '이태원 클라스' 팀의 '근원'이자 '한국판 조커'였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대해 안보현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

고요"라며 웃어 넘겼다. "시청자 입장에서 욕받이 하는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0회에서 전 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시작해야 하는데 앞부분이 너무 세지 않았나 싶어요. 장근원이 워낙 모질게 하는 행동이 많았으니 11회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뭔가 파격적인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안 나와서 시청률이 하락한 건 아닌 것 같아요(웃음)."

안보현은 장근원 캐릭터를 위해 보이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다. 악역이 주인공에게 뒤통을 때릴 때 느껴지는 '통쾌함'을 주려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까지도 그의 계산의 산물이었다고 한다.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원작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장근원에 대한 서사를 가미하면서 스타일링이나 톤으로 악함을 어

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악행 연기를 많이 봤는데, 실성하고 웃어버리는 조커처럼 악함을 웃음으로 표현하는 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는 극 초반엔 수트를 입은 채로 딱딱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운동으로 몸집을 불렸고, 이후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날렵해 보이는 스타일로 각성 전후 모습에 변화를 줬다고 덧붙였다.

10회에서 장근원이 아버지 장대희(유재명) 회장으로부터 버림받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명장면으로 꼽힌다. 안보현은 "극 초반 닭 모가지 비트는 장면과 함께 어마어마한 부담이 됐던 신"이라며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했던 근원이 캐릭터가 아주 잘 살았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7개월간 감정을 이입해본 결과 장근원은 안타까운 면이 많은 캐릭터였어요. 측은 하나 없이 혼자 발버둥 치다 보니까이 캐릭터에게 입체감을 주고 싶었죠. 아버지, 새로이, 수아(권나라) 앞에 있을 때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

다. 일차원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나름 머리를 굴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단발즈'가 뽀뽀 뽀치는 데 반해 고군분투하는 악역 연기를 펼친 그는 "외롭고 '단발즈'가 부러웠다"고 농담 반 진담 반 말하기도 했다.

복싱 선수에서 모델로, 모델에서 배우로 정착한 그는 '애가 개야?'라는 반응이 제일 좋다고 했다. 마침 장근원 역으로 주목받으며 그가 예전에 연기한 KBS 2TV '태양의 후예' 임남남, tvN '그녀의 사생활' 남은기도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다. 안보현은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연기하는 게 목표"라며 "가수들이 차트 역주행하면 어떤 기분일지 알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나중에 '이태원 클라스'보다 더 큰 작품을 하더라도 장근원만큼은 제 '최애'(가장 좋아하는 것)가 아닐까 해요.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데 제가 아는 선에선 모두가 만족했던 캐릭터 같아서요. 악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욕을 들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하하." /연합뉴스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유튜브 11억 뷰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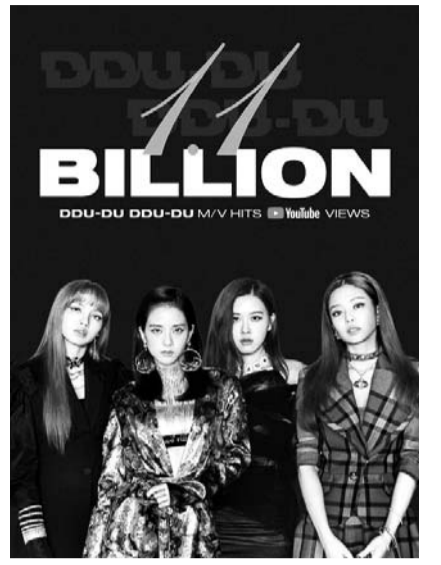
K팝 그룹 최초

결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사진)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 최초로 유튜브 10억 뷰에 이어 11억 뷰도 돌파했다.

속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공개 1년 9개월 만인 24일 정오께 유튜브 조회 수 11억 건을 넘어섰다.

'뚜두뚜두'는 블랙핑크가 2018년 6월 발매한 첫 번째 미니앨범 '스퀘어 업'(SQUARE UP) 타이틀곡으로,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퍼포먼스가 특징이다.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10억 뷰를 넘었다. K팝 가수 뮤직비디오가 10억 뷰를 달성한 것은 사이이 후 처음이자, 아이돌 그룹으로는 최초였다. 블랙핑크는 '뚜두뚜두' 외에도 '봄바



야'가 8억 뷰, '마지막처럼'·'킬 디스 러브' 7억 뷰, '불장난'·'휘파람' 4억 뷰 등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조회 수 1억 이상 영상이 18편에 달해 '유튜브 퀸'이란 수식어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MBC '365' 4.9%, tvN '반의 반' 2.4% 출발

같은 날 같은 시간 출발을 앞둔 두 월화 드라마, tvN '반의 반'과 MBC TV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이 각각 2%대와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2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방송한 드라마 시청률은 '365'가 4.0%-4.9%, '반의 반'이 2.4%(유료 가구)로 나타났다.

두 드라마는 전혀 다른 장르와 볼거리로 안방 시청자와 만났다.

'365'는 빠른 전개가 돋보였다. 괴로운 삶을 사는 지형주(이준혁 분)와 신가현(남지현) 등은 시공의 틈으로 과거에 속한 육신에 현재의 기억을 보내는 정신과 전문의 이진(김지수)을 만나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간 '리셋'을 선택한 사람 10명 중 1명이 사망했다는 극적인 엔딩이 전개되며 안방극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 추리소설을 리메이크한 '365'는 타임슬립이라는 드라마 단골 소재를 흥미로운 세계관으로 엮으며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살렸다. 극 중 이진이 시간을 리셋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는 공간 지안원과 리무진을 타고 절벽 끝에서 떨어져 시간을 되돌리는 연출 등이 호평을 받았다.

'반의 반'은 짝사랑을 잊지 못하는 하원(정해인)의 아련한 그리움이 강조됐다. 수채화로 칠한 듯한 질감의 화면과 이사업 PD의 영화 같은 연출이 돋보였다. 극 중 클래식 녹음 엔지니어라는 한 서우(채수진)가 녹음실에 들어가 작업하는 모습에선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기도 했다.

한편, 전날 방송한 월화드라마 중에선 SBS TV '아무도 모른다'가 6.8%-9.1%로 1위를 지켰다. JTBC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2.3%.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50 꽃길만 걸어요(재)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지구촌 뉴스 45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스파이 아성 대탐험	45 그 남자의 기억법(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0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키트 유니버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5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공룡의 왕국	00 12 MBC 뉴스 20 빅스붐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오세모
1	0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스펀지 스페셜		20 헬로키키트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성여정(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뉴스브리핑
3	1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서거식당(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MBC PICK X 그 남자의 기억법 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제21대 총선 정당정책연설 <민생당>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40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민생당>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동물의 왕국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봅시다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강건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브24 50 살피는 남자들	55 그 남자의 기억법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어서와	05 실화탐사대	00 트롯신이 떴다
11	35 UHD 송대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도올학당 수다승철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15 특선다큐 하늘에서 본 알제리 45 영상앨범 산(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페이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8:00 당동맹 유치원	14:45 몰랑	20:00 마틸다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30 아웅명명 귀여워2(재)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월드랜드 로키, 일래스카
09:30 원더볼츠	15:55 엄마 까투리(재)	<어머머마한 가족>
09:40 아웅명명 귀여워2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특집 부모특강 0.1%의 비밀	16:25 페퍼 피그(재)	<여행책에 없는 제주 3부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그 섬에 청보리 일렁이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크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2:45 극한직업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3:3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5일 (음 3월 2일 丁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48년생 복잡다단하여 장고를 거듭하리라. 60년생 이전의 국제와는 전혀 무관한 형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72년생 일일이 확인하는 습관이 유익하다. 84년생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96년생 국면을 이끄는 제반 장치들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77

丑 37년생 대상자는 반드시 내부에 있습니다. 49년생 소강상태를 보이게 된다. 61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73년생 가장 절실했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85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겠다. 97년생 승리를 거스르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8, 60

寅 38년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도 좋을 때가 되었으니라. 50년생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남이 예상된다. 62년생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74년생 지나치다면 아니할만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86년생 갑자기 서두르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98년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7, 75

卯 39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실행하라. 51년생 적절하니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때 무난하게 처리 된다. 75년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겨우 마칠 수 있겠다. 87년생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 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리라. 99년생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17, 82

辰 40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2년생 참으로 난감 하리라. 64년생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76년생 경거망동 한다면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 될 것이다. 88년생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00년생 불변하거나 부당한 것은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18, 88

巳 41년생 확신한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53년생 조절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65년생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 77년생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89년생 양호한 구도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충분하다고 본다. 01년생 지금 잘 관리해 둔다면 향후의 효용성을 높인다. 행운의 숫자 : 00, 92

午 42년생 사소한 근심은 버려도 된다. 54년생 의욕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실행해야 한다. 66년생 소상하게 알아야 정확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78년생 의심스러운 점은 꼭 문의해 봐야 한다. 90년생 분류를 잘 해둔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케 한다. 02년생 현실의 역경에 순응한다면 미래의 결실은 늘어난다. 행운의 숫자 : 25, 54

未 31년생 없음으로 인해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43년생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55년생 세부적으로 이해하면 무탈 하리라. 67년생 식상함에 파묻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79년생 상스러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91년생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슬슬 풀리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1, 80

申 32년생 길사로 연결되며 발전된 양상을 띤다. 44년생 기본적인 사실 속에서 중차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56년생 전환의 기회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68년생 가볍게 통과 되겠다. 80년생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해두는 게 맞다. 92년생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라. 행운의 숫자 : 20, 66

酉 33년생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보인다. 45년생 될 일은 과일의 이치이니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겠다. 57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69년생 뻔히 알면서도 우려하였던 형편에 이르게 할 필요는 없다. 81년생 아차하면 후회하게 되어 있으니 선택을 잘 하라. 93년생 연쇄적이다. 행운의 숫자 : 45, 96

戌 34년생 동일한 현상이 반복 되면서 상승 기류를 마련한다. 46년생 답답지 않은 것으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58년생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70년생 풍성한 성과의 환희가 있다. 82년생 적절한 융통성은 융합유 역할을 하리라. 94년생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행운의 숫자 : 09, 91

亥 35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47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만 한다. 59년생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니 조심해야만 한다. 71년생 정확히 표적을 맞추는 형상이다. 83년생 작정하여 왔던 바대로 모색하면 틀림없이 유리한 판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95년생 실속은 없고 겁만 번지르르하겠다. 행운의 숫자 : 06, 89